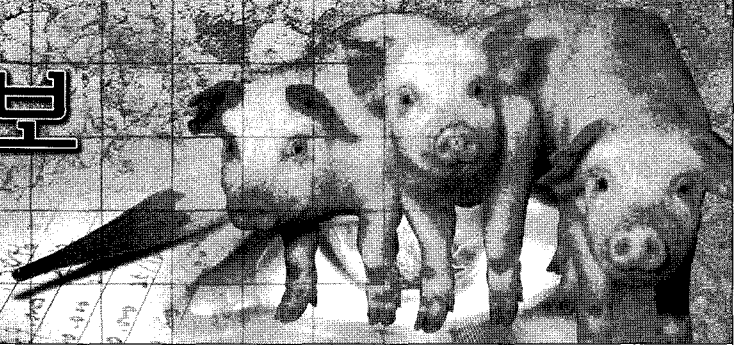


# 축산정보



## 돼지 사육두수 감소세 지속

-6월 총 사육두수 878만6천두, 전년동기비 2.6% 감소

돼지 사육두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월 돼지 사육두수는 총 878만6천두로 전분기인 3월(883만8천두)보다 0.6% 감소하고, 전년동기(901만7천두)대비 2.6% 감소했다.

농림부는 최근 6월 가축통계 조사결과에 따라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감소 이유를 생산성 저하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육 가구수 또한 1만2천150호로 전분기비 0.7%, 전년동기비 10.5% 큰 폭 감소해 돼지 사육 농가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육 가구당 마리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한 723두를 기록했다. <본지 225page 참조>

## 돼지 등급판정수수료 67% 상향 조정 검토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7월 5일 등급판정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이사회에서 등급판정수수

료 조정 검토(안)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돼지는 현행 두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소는 현행 두당 1,6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

등급판정수수료 조정은 농림부가 내년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해 재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수료 조정 검토(안)에는 징수대상 품목을 현행 소, 돼지, 계란에서 소, 돼지, 계란, 닭고기, 부분육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수수료 인상(안)은 9월 이사회에 상정되고, 인상폭이 최종 결정되면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외 축산물등급판정업무 발전 방안 중 돼지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돈육 구매시 등급이 활용되도록 새로운 등급판정기준을 개발하고, 삼겹살 및 목살 등 돈육품질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돼지고기의 부분육등급표시 확인 활성화 추진,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달부터 도축세도 오른 상황에서 내년부터 등급판정수수료

까지 인상될 경우 양돈농가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05년 상반기 돈육 수입량 폭증

### -미국산 냉장육 수입 급증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총 수입량과 비슷한 양을 기록했다.

최근 농림부의 축산물수입검역 통계에 따르면 1~6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총 10만5천921톤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누계 10만8천829톤의 97.3%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산 돈육 수입량은 여전히 높아 냉장돈육 상반기 수입량 2천889톤 중 미국산이 2천2톤을 차지했다.

국별로는 상반기 동안 미국산이 2만7천125톤이 수입돼 지난해 총 1만2천888톤 수입량을 크게 넘어섰으며, 칠레는 1만3천564톤, 프랑스산 1만1천723톤, 캐나다산 1만1천225톤, 벨기에 9천792톤 등이 각각 수입됐다.

부위별로는 갈비 1만5천581톤, 뒷다리 873톤, 등심 585톤, 안심 502톤, 앞다리 1만3천349톤이 수입됐고, 목심과 삼겹살은 각각 1만7천919톤, 4만9천968톤이 수입됐다. 한편 6월까지 냉장돈육 수입량

■ 국별 돼지고기 수입현황

(단위 : 톤)

국 별	미 국	칠레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6월중 수입량	3,175	2,104	1,174	1,439	1,006	845	574	374	
1~6월 수입누계	27,125	13,564	11,723	11,225	9,792	6,651	5,707	4,940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멕시코	스웨덴	호 주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소계
501	744	322	154	23	141	20	122	-	12,719
4,245	3,343	3,258	1,571	709	636	584	577	163	105,921

은 2천889톤, 냉동돈육 수입량은 10만3천32톤이었다.

국내 축산업 생산유발액 40조

양돈협회가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양돈선진국의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 연구를 통해 국내 양돈산업 생산유발액이 9조원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어, 강원대 김경량 교수팀에 의해 국내 축산업의 총 생산유발액이 40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7일 강원대에서 개최된 한국축산경영학회 하계 심포지엄에서 김경량 강원대 교수와 국민경제경영연구소 정해동·최윤상 박사는 '축산연관산업의 구조와 변화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 등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해 산정한 축산업의 총 생산유발액은 38조8천975억7천5백만원이며, 이중 축산업의 생산액 및 자체 생산유발효과인 9조5천229억원을 제외한 29조3천747억원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업의 관련 산업 취업

유발효과는 98만4천777명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양돈산업의 경우 총 생산유발액은 8조9천895억원이고, 총 취업유발인원도 7만5천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축산업 등록률 87.3%

농림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비율(등록대상 농가 대비 등록을 마친 농가 비율)이 87.3%(양돈 62.8%)이며, 법정 등록기한인 올해 12월 23일까지는 전체 대상 농가 3만9천 호가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률이 높아진 것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 축산농가의 공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 농가주, 사육시설규모 등 일반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축산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사료·약품·분뇨 등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등록정보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2006년 축발기금 9천 959억 원 운용

—농림부,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전년비 6.2% 증액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의 총 운용규모가 9천 959억원으로, 2005년 9천379억원 대비 6.2%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20일(월)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농림부 이명수 차관)를 개최하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기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경상보조사업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자금운영으로 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06년도 기금을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06년도 '기금 수입'은 마사회 납입금 등 신규조성액 1천509억원, 융자금 회수액 5천334억원, 여유자금 회수액 3천116억원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기금 지출'은 원유수급조정 자금 등 경상사업비 2천344억원, 브랜드경영체지원 등 융자사업 4천 649억원, 여유자금 운영 2천453억원, 기타 농특원리금 상환 등 513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고, 가축개량사업소와 등급판정소 등 관련조직의 구조조정과 수익자부담을 확대해 경상비 지출을 줄였다. 반면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농

가경영안정 및 축산물소비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비는 증액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융자 사업 추진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체 등 일정 규모 이상 법인체 지원사업을 종합자금 지원형태로 통합해 자금을 운영키로 하고, 일반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축발기금 융자사업 대출취급기관을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영 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 농림부, 축산법 개정 추진

축산법에 대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법령개정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각 기관·단체에 동법령 개정 요청사항을 제출받았다.

■문의 : 농림부 축산정책과(02) 500-1887

### 축산연-전북, 검역원-경북 이전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따르면, 축산연구소는 전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경북으로 이전키로 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북,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업연수원,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 농업전문학교,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으로 이전된다.

### “농민 자녀 양육비 지원 전면 확대하라”

#### -농민단체 공동 건의문 통해 밝혀

지난 7월 13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엄성호)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익),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허기옥) 등 3개 농민단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농업 발전과 농촌 유지를 위해 영유아양육비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농민단체는 건의문에서 농민들과 농촌주민에게 절박한 이농원인은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교육문제라고 밝히고, “정부는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영유아양육비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현재 2ha 미만 등 소유면적 상한기준을 제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읍·면이 491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친환경농업이 보인다”

##### -화학비료 보조를 유기질비료로 전환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7월 1일 폐지된 화학비료보조 수준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친환경농업을 농업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 등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개선키로 했으며, 기존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시군 또는 읍면단위를 묶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1,000ha 이상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2013년까지 50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40% 감축해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10%까지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 개최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주최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가 오는 7월 5일(화)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정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지정토론에는 정영일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재복 농협중앙회 상무, 문명수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 박노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 설광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기호 변호사, 신동환 KBS 플러스 대표, 이정

주 한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이 참여한다.

### 당뇨 치료용 복제돼지 첫 탄생

국내 연구진이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세포를 인간에게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복제돼지를 처음으로 생산했다.

복제돼지는 모두 5마리가 태어났으나 이 가운데 1마리만 살아남아 현재 축산기술연구소 무균 인큐베이터에서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장기개발 벤처기업인 (주)엠젠바이오 박광욱 박사팀은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간 면역 유전자(HLA-G)를 가진 복제돼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지난 7월 13일 밝혔으며, HLA-G 유전자는 체장 내 인슐린 분비 세포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 가능

농림부가 최근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 조건'을 마련하고 지난 7월 11일 고시함에 따라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고시된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영국내에서 구제역, 우역, 가성우역,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돈열, 돼지수포병, 돈열, 돼지텃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당 질병이나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이 중단되고,

수입 재개시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울러 영국에서는 수출할 돼지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의 경우 영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농촌 소득은 불만, 환경은 만족

-안전성·건강성·고령화 높아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2004년 11월 1일~14일까지 88개 시군 1,870가구를 대상으로 농촌생활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농촌주민들은 소득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평가했으나,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및 환경 부문에서는 지역개발이 늦더라도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59.7%로 반대 8.3%보다 매우 높았으며,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 50.4%, 만족 35.6%, 불만족 13.9%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2.6배 높았다.

생산 및 소비 부문에서는 농촌주민들이 스스로 평가한 가구의 소득만족도는 불만 53.7%, 보통 35.4%, 만족 10.9%로 과반수 이상이 불만족스럽게 평가했으며, 장래 5년 후 소득에 대한 예상에서도 감소 50.6%, 변화없음 35.1%, 증가 14.3%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식생활 부문에서는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비율이 10.3%로 '01년 12.9%보다 감소했으며,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의 저

장식품 자가제조 정도는 '01년(87.0%)보다 3.7% 증가하는 등 농촌지역에서도 '안전성'과 '건강성'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가구 중 3.2%만이 최근 2년간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지역 5.1%, 면지역 2.2%이며, 영농여부별로는 농가 3.1%, 비농가 3.3%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나타냈다.

### 단체급식, 돼지고기 시장 '알짜'

-영양사대상 돼지고기 소비실태 조사 보고

-저지방 부위 사용 메뉴 개발·영양사대상 소비 홍보활동 강화 제시

단체급식시장이 양돈업계의 '감추어진 시장', '알지 못했던 시장'으로 떠올랐다. 이는 단체급식에서 10% 소비를 증가시켰을 때 510억의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최근 2004년 양돈자조활동자금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가 (사)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해 실시한 「영양사대상 돼지고기 소비실태조사」결과 이같이 평가하고, 단체급식시장은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단시간에 저지방부위 소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돼지고기 소비 실태를 조사해 돼지고기 소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저지방부위 소비촉

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해 실시됐다.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 설정

### -기본법 관련 공개 토론회 열려

지난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본법 개정방향을 설정키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영일 서울대 교수 사회로 열렸으며,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아울러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하에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협의회' 탄생

전국 25개 한우와 돼지고기 브랜드 경영체가 참여하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협의회(LBC-Livestock Brand Commission)'가 탄생했다.

25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들은 지난 7일 서울 서초 소재 팔레스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축산물브랜드

경영체협의회' 창립 총회를 갖고 2년 임기의 초대 협의회장에 진길부 도드람양돈농협(도드람포크) 조합장을 선출했다.

## "바닷가 콘도서 삼겹살 먹으며 휴가를..."

"가족과 함께 바닷가 콘도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보내고 싶다", 올 여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선호하는 휴가 계획이다.

최근 신세계 이마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2만3,954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이처럼 분석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올 여름 2박3일 일정(45.3%)으로 바닷가(48.9%)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웠으며, 숙박은 4인 가족이 머물기에 편한 콘도(30.3%)와 펜션(30.2%)을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휴가지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삼겹살(22.7%)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김치찌개(12.2%), 라면(10.4%), 양념돼지불고기(7.2%) 등으로 나타났다.

## 휴약기간 준수·후기사료 급여해야

### -농림부, 잔류위반농가 66농가 발표

농림부는 올해 1월부터 7월초까지 잔류위반농가를 66농가로 파악하고, 잔류위반농가의 대부분이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후기사료를 급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농림부는 항생제 등 유해성물질이 식육 중에 잔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에서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후기사료를 급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각 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항생제 등 유해성 잔류물질 위반 감소를 위해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을 마련해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올해 잔류위반율 목표치를 선진국 수준인 0.25% 이하로 설정했다.

또한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을 개정해 잔류 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1농가 1공무원 담당제도를 시행하는 등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 PED 계속 발생

PED(돼지 유행성설사병)와 돼지 오제스키병(AD)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5월 농림부 가축전염병발생월보에 따르면 PED는 2농가 450두가 발생해 전월 8농가 396두 발생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한편 1월~5월까지의 PED가 2,261두에 발생해 전년동기 8천 915두 대비 크게 줄었으나, 오제스키병은 633두에 발생해 전년동기 204두 대비 크게 늘었다.

## PED, 10분만에 확인 가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PED(돼지유행성설사병)를 즉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국내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함에 따라, 일선농장에서는 돼지 설사변 한 방울만으로도 현장에서 PED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신속간이진단키트는 PED를 1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도도 95% 정도로 높아 기존의 정밀검사 진단법인 중합효소연쇄반응(PCR)처럼 정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역원은 이번에 개발된 진단키트를 농장에서 사용함으로써 PED 감염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됐고, 전염병 확산도 조기에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자가백신 제조신고 간편해진다

자가백신 제조업소는 검역원장에게 자가백신 제조신고서 신고서만 제출하고 시제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자가백신 제조신고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또한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을 받아야만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경과조치를 삭제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지정 및 관리요령 고시개정

## 최염순 서기관, 근정포장 수상



최염순 서기관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최염순 서기관이 지난달 8일 2004 재난대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에서 가축개량 등의 공

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최염순 서기관은 1977년에 농림부에 첫 발을 내딛고 지금에 이르렀다. 최 서기관은 평소 주관 이 뚜렷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신뢰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을 입안예고 했는데, 여기에는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생산한 생물학적제제의 국가면제승인절차 규정은 삭제토록 했다.

## 축산물 수입신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통한 축산물 수입신고가 가능해졌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쇠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검역원에 쉽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수입신고를 확대시키기 위해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전산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월 20일부터 신고 수수료(1만5천원)를 면제시켜주는 한편, 제출 서류도 팩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축산물 수입신고는 대부분 민원인이 검역원을 직접 방문해 축산물 수입신고서를 제출해 왔으며, 인터넷을 통한 수입신고 비율은 약 3%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검역원, 중국농업대와 연구협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 박사)은 중국 북경에서 중국농업대학교와 기술정보교환 및 연구인력교류 등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협력협약(2005.6.28)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협정서 교환 후 '중약제를 이용한 가축의 주요 세균성질병 치료대체제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동물에서 중약물질을 활용한 수의축산기술 개발 및 과학자간의 정보교환, 전문가 초청 등이며, 이외에 양 기관의 연구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사항과 협약서 효력에 대한 사항이다. **양동**